

기로에 선 공영 KBS '생존' 몸부림

고려거란전쟁·개콘으로 정체성 강화
하이쿠키·서치미...LG유플러스와 협업
"KBS가 제작, KBS서 방송" 벗어나야
OTT 시대 위기...올해 800억 적자 예상
드라마·예능 제작 효율성 극대화 기대



KBS가 공영방송 생존 기로 속 돌파구를 찾는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최대 위기에 처했고, 김의철 사장 해임 등으로 내용이 심한 상태다.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박민 사장 취임 전후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이 변화 물꼬를 트고 있다. 1TV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과 2TV '개콘콘서트'로 공영방송 정체성을 강화하고 LG유플러스 등과 협업해 제작비를 절감하는 추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튜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려거란전쟁은 공영방송 가치를 보여줬다. 11일 첫 선을 보인 후 이틀 만에 국내 넷플릭스 3위에 올랐고, 14~15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일 기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넷플릭스에서 지상파 대하사극을 선보이는 건 처음이다. '연모'(2021) 등을 통해 해외에서 퓨전사극 열풍이 일었는데, 고려거란전쟁을 통해 정통사극도 세계시장에서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련대가 될 전망이다.

총 32부작이며, 제작비 270억원을 투입했다. 회당 약 8억4000만원으로 OTT 대작에 비하면 제작비가 많이 든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정통사극은 간접광고(PPL)가 어려운 만큼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 안방극장에서 점점 사라졌다. 전작인 '태종 이방'

원'(2021~2022)으로 5년 만에 KBS 1TV 대하사극이 부활했지만, 말 학대 논란으로 폐지 청원이 빚발쳤다. 고려거란전쟁 방송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수종이 힘을 실어줬다. '태조 왕건'(2000)부터 '해신'(2004) '대조영'(2006), 대왕의 꿈, '입진 왜란 1592'(2016)까지 KBS 대하사극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다.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김동준 연기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지만, 오랜만의 정통사극에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1~3회 시청률 5~6%대(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했으며, MBC TV 금토극 '연인'과 JTBC '힘센여자 강남순' 종방 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콘콘서트는 2020년 6월 폐지 후 3년6개월 여 만에 돌아왔다. 부활 후 개콘 1051회는 시청률 4.7%를 기록했다. 종방 직전 2~3%대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정통 코미디 매력은 물론 KBS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5월 크루 모집을 통해 이수경 등 새 얼굴을 찾았고, SBS TV '웃찾사' 출신과 유튜브 스타도 투입했다. SBS 공채 김지영·박형민, 개콘맨 신동엽, 님은꼴 남현승,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레이디 액션'(임선양·임슬), 약 35만명의 '하이픽션' 방주호 등이다. 과거 KBS 공채 개콘맨 위주로 코미디쇼를 선보인 것 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물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1분 이내 숏폼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이들 사이에선 실망 섞인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선 코너 '니통의 인간극장' '데프콘 님은 여자 어때요' 등이 시대착오적인 개그로 웃음을 준다고 지적했지만, 지상파 코미디쇼를 향한 잦은 지적이 엄격한 게 사실이다. 니통의 인간극장은 유튜브 채널 '꼭씨네' 콘텐츠를 개콘 무대로 옮겨와 수위를 낮췄는데, '외국인 말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희화화한다'는 비판은 속상할 수밖에 없다. 김상미 CP가 제작발표회에서 "은 가족이 함께 보며 세대 갈등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것처럼, 개콘 스타들이 나와서 다시 한 번 공개 코미쇼 전성기를 맞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다.

LG 유플러스와 협업도 활발한 추세다. 최근 KBS 소속인 송민엽 PD는 U+모바일tv 첫 드라마 '하이쿠키'를 연출했다. KBS 2TV '오월의 청춘'(2021) 이후 두 번째 메인 연출작이다. 지상파는 PD들의 잇따른 퇴사로 프로그램 경쟁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하이쿠키는 아카데미와 KBS 계열 몬스터유니온이 함께 제작, U+모바일tv와 넷플릭스로 공개해 시청자와 접점을 넓혔다. 청소년 마약을 소재로 해 지상파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만큼, OTT로 편성해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달 23일 첫 공개 후 국내 넷플릭스 상위권에 올랐으며, U+모바일tv 가입자 증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첫 선을 보인 '서치미'는 U+모바일tv에서 매주 월·화요일 자정 공개하고, KBS 2TV에선 매주 목요일 전파를 타고 있다. 진짜 지인을 찾는 추리 예능물이다. 아나운서 전현무와 코미디언 이은지, 광범, 그룹 '미러소년' 손동표가 패널로 합류했다. 1회는 여행 크리에이터 광범과 빠니보틀, 채규제가 출연했으며 전국 시청률 1%에 그쳤다. LG유플러스가 만들고 KBS는 방송만 내보내 제작비 부담이 줄 수밖에 없다. 기존에 ENA, IHQ, 채널A, MBN 등 케이블·종합편성채널이 인지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 제작하곤 했다. 다 만든 프로그램을 틀어주기만 하고 편성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 KBS 예능물 역시 넷플릭스 등 OTT와 경쟁에서 밀려 위기를 맞은 만큼, 동시 편성·공동 제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KBS는 출범 5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수신료 7000억원을 받았지만, 100억원 적자를 냈다. 올해도 8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박 사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KBS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몬스터유니온, KBSN 등 유튜브·제작 플랫폼을 통합해 스튜디오를 넘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제 'KBS가 제작해서 KBS에서 방송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방송도 일정 부분 제작 영역에서 상업적인 변화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브, 첫 월드투어 日 요코하마서 포문

4세대 K팝 간판 걸그룹 '아이브(IVE)'가 첫 번째 월드투어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18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는 지난 15~16일 일본 요코하마 K-아레나 요코하마(K-ARENA Yokohama)에서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와이 해브(IVE THE 1ST WORLD TOUR 'SHOW WHAT I HAVE')'을 성료했다.

이날 아이브는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아이엠(I AM)'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히트곡 무대, 유닛 무대, 일본 공연만을 위한 첫 번째 일본 앨범 타이틀곡 '웨이브(WAVE)' 무대는 물론, 신보 '아이브 메인(IVE MINE)'의 트리플 타이틀곡 '배디(Baddie)',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이더 웨이(Either Way)' 무대까지 풍성한 세트리스트를 자랑하며 현지 팬들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브는 지난 2월 첫 번째 팬콘 '더 프롬 퀸즈(The Prom Queens)'를 통해 5만7000명의 일본 팬들과 만났다. 당시 현지 첫 일본 단독 공연임에도 아레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아

이브는 이번에는 요코하마에서만 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아이브는 한국 가수로는 처음 'K-아레나 요코하마' 공연장에서 무대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아이브는 "요코하마 공연으로 월드 투어의 첫 해의 공연 시작을 알리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신 다이브(팬덤명)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보일 월드 투어 무대들도 팬들과 특별한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다. 이제 시작한 월드 투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아이브는 현지 데뷔 싱글 '일레븐'으로 일본 레코드 협회가 선정한 '골드 디스크(Gold Disc)'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발매한 첫 번째 일본 앨범 '웨이브(WAVE)'로는 오리콘 데일리, 주간 앨범 차트 1위, 타워레코드 전집 종합 앨범 차트와 빌보드 재팬 주간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 등을 석권했다.

트라이비,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발매

그룹 '트라이비'가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을 발표한다. 트라이비는 지난 1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오는 11월말 발매될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더 리틀 드러머 걸스(The Little Drummer Girls)'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발매를 앞둔 캐럴 뮤지비디오 속 NG 장면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형식으로 재치있게 담겼다.

멤버들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오브제로 꾸며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최근 화제를 모은 켈린지들을 소화했다.

한편 트라이비는 지난 2월 두 번째 미니앨범 '웨이(WAY)' 활동 후 'K콘 재팬 2023', 첫 미국 투어 '트라이비 비다 로카 2023 USA 투어(TRLBE VIDA LOCA 2023 USA TOUR)', 브라질 상파울루 '아시아 스타 페스티벌(ASIA STAR FESTIVAL)' 등을 성료했다.



방탄소년단 정국, 올라운드 엔터테이너...팍계 '온고지신' 미학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전정국)이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 활동으로 팝스타계 '온고지신(溫故知新)' 행보를 증명해나가고 있다. 마이클 잭슨, 프린스, '엔싱크' 출신 저스틴

저스틴 팀버레이크·저스틴 비버 잇는 2020년대 대표 팝스타

팀버레이크, '데이크랫' 출신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저스틴 비버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솔로 남성 아티스트에 이어 2020년대 간판 남성 솔로주자로 임지를 굳히고 있다.

정국은 기존 팝스타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끽하는 동시에 이들의 매력에 잠입해 스타일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븐(Seven)(feat. Latto)'으로 비버의 활기찬, '3D(feat. Jack Harlow)'로 팀버레이크의 그루브, '스탠딩 넥스트 투 유'로 80년대 잭슨·프린스가 선보인 펑크(funk)를 자기 것으로 가져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영국 음악 매체 'NME'는 정국의 '골든' 활동에 대해 "10년마다 '팝의 왕'이 있었지만 2020년대에는 아직 대형 남성 솔로 스타가 없었다. '골든'으로 정국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증명했다. 2020년대는 마침내 '팝의 왕'을 찾았고, '골든'은 그에게 왕좌를 보장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중요한 건 정국이 일종의 팝계 수록양용(水陸兩用)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속한 방탄소년단이라는 바다(水)에선 '황금 막내'로서 다

른 여섯 멤버들과 호흡,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한다. 동시에 솔로라는 물(陸)에 올라오면, 자신의 취향이 마음껏 드러나는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실험을 통한 '퍼포머'로서 아이돌에 대한 기존 편견을 깨나간다.

정국의 퍼포먼스는 '스탠딩 넥스트 투 유'의 화려한 관악기 라인처럼 황금빛 쾌감을 안겨주는데, 그건 노래 속 대상에 푹 젖어 들어갈 수 있다. 정국은 가창력, 춤 실력뿐만 아니라 표정 연기 측면에서도 호평을 듣는데 이는 노래를 듣는 이들이 그의 관능에 왜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그 불가피함을 설명한다.

아울러 이런 능력에도 자기검열이 강한 그는 팬들 앞에서 항상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자책하며 더 나은 아티스트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한다. 그건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아티스트에서 볼 수 있는 태도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쌓인 이런 다양한 면모가 정국이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근거가 됐다.



연장 효과없네...남궁민 '연인' 12.9% 종방

남궁민 주연 '연인'이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12%대를 넘지 못했다. 1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MBC TV 금토극 '연인' 21회는 전국 시청률 12.9%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기록이지만, 20회(12.4%)와 비슷한 수치다. 이미 10회 12.2%를 찍었으며, 연장 방송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MBC 드라마 중 유일한 히트작이다. 두

달 간격을 두고 파트1은 8~9월, 파트2는 10월 부터 방송했다. 애초 20회로 기획했으나, 1회 연장에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는 병자호란의 병화 속으로 던져진 '이정현'(남궁민)·'유길재'(안은진)의 사랑과 고난 속 희망을 일군 백성들의 이야기다. 마지막회에서 역대로 물린 장형은 관군에게 쫓겨 길재와 헤어졌지만, 극적으로 재회했다.